

◇최소 침습적 심장수술-하부 흉골절개술에 의한-

김병훈, 최강주, 류지윤, 이양행, 황윤호, 조광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_ 최소 흉골절개술에 의한 심장수술은 전통적인 정중흉골절개술보다 절개창의 크기가 작고 환자에게 술후 빠른 회복과 상처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법 : _ 1998년 4월부터 7월까지 최소 흉골절개술[하부흉골절개술]에 의한 심장수술 25례를 시행하였다. 대상환자의 평균나이는 30세, 평균체표면적은 1.5m² 이었고 남자는 10명, 여자는 15명이었으며 10세 미만 소아도 4명이었다. 수술은 승모판막질환 10례, 심실중격결손증 4례, 심방중격결손증 11례를 대상으로 하여 피부를 3번 늑간에서부터 검상돌기의 끝까지 정중 흉부선을 따라 절개하였고 피부절개창의 길이는 평균 11cm이고 흉골은 2번 늑간에서 하부까지 정중절개하였는데 대상환자중 4례에서는 좌우 2번 늑간으로 “T” 형, 17례에서는 좌측 2번 늑간으로 “J” 형 횡절개를 하였고, 소아 4례에서는 횡절개를 하지않았다

결과 : _ 최소 절개에 의한 합병증은 없었고 통증이 적어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결론 : _ 최소 흉골절개술[하부흉골절개술]에 의한 심장수술은 전통적인 정중흉골 절개술보다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미용적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최소절개로 인한 합병증도 없어 향후 이러한 수술법의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저자:조광현(인제대학교) 발표자:김병훈(인제대학교)